

기상 보도 텍스트를 활용한 복합 양식 문식성 교육*

김 평 원**

국문초록

텍스트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거쳐 가상현실에 이르기까지 매체는 복합 양식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전략은 시각 자료의 이해와 활용에 국한된 상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복합 양식 문식성(multimodal literacy)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교수 지식을 텔레비전 기상 보도 텍스트를 통해 제안하는 것이다. 텔레비전 기상 보도 프로그램은 일상적인 복합 양식 미디어 텍스트로서, 현행 기상 보도는 전국 기온, 해상 날씨, 주간 날씨와 같이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역행적 구성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시청자들은 주제별로 반복되는 설명을 시간의 흐름에 맞게 재구성해야 하는 인지적 부담을 지게 된다. 대안적인 기상 보도 프로그램의 내용 구조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되 분석의 깊이를 훼손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현행 기상 보도 텍스트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교수·학습에 적용한다면 복합 양식 매체의 리터러시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매체, 시각자료, 매체 언어, 복합 양식 문식성, 텔레비전, 기상 보도 텍스트

*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으며(NRF-2015S1A5A8010945), 시선 추적 데이터 수집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되었음(IRB : 7007971-201612-006-01).

**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http://dx.doi.org/10.15734/koed..114.201803.67>

1. 서론

텍스트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거쳐 가상현실(VR)에 이르기까지 매체가 복합한 양식으로 발전하면서,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인포 그래픽(Infographics)과 복합 양식 리터러시(multimodal literacy)가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정혜승, 2008). 인포 그래픽은 그림, 사진, 차트,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전달하고 싶은 정보를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텔레비전 기상 보도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포 그래픽이다.

텔레비전 기상 보도 프로그램은 인포 그래픽과 이를 설명하는 화자를 하나의 화면으로 융합한 미디어 텍스트로서, 기상청이 발표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압축하여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하는 대중적인 프로그램이다(김정운, 2015). 기상 보도는 짧은 시간 안에 전국 기온, 해상 날씨, 주간 날씨와 같은 많은 정보를 요약하여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 전달력을 극대화하는 형식으로 발전하였다.

기상 보도 프로그램의 형식은 1950년대 기상도를 그리면서 설명하는 방식에서, 1970년대 기상 기호를 게시판에 부착하면서 설명하는 방식을 거쳐, 1990년대 인포 그래픽과 기상 캐스터를 한 화면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주요 방송사의 기상 보도는 기상 캐스터의 음성 정보와 컴퓨터 그래픽의 시각 정보를 동시에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1990년대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30년 가까이 유사한 형식을 유지하면서 텔레비전 기상 보도 프로그램은 전형적인 미디어 텍스트 장르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텔레비전 기상 보도 프로그램의 영향력은 크게 감소하였다. 이제 시청자들은 텔레비전 이외에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상세한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텔레비전 기상 보도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기상 정보보다는 기상 캐스터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화려한 인포 그래픽과 수치 정보들이 오히려 시청자의 몰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시간으로 국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미시적인 기상 정보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거시적인 기상 정보라는 점에서 텔레비전 기상 보도는 새로운 형식으로 변화를 주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행 텔레비전 기상 보도 텍스트의 문제점을 정보 과잉과 시청자의 몰입을 방해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비판하고, 대안적인 방식을 제안하여 이를 복합 양식 문식성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미디어 텍스트의 구조에 관한 비판과 대안의 모색은 매체 언어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안적인 매체 글쓰기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국어 교육학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다.

2. 텔레비전 기상 보도 텍스트의 특징

2.1. 기상 보도 텍스트의 내용 구조

오늘날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해 이야기 문화를 꽃피우는 소재가 되었다. 텔레비전이 만들어 내는 미디어 텍스트는 일단 완성된 상태에서 독자의 평가를 기다리는 출판 매체와는 달리 제작 과정이 매우 유동적이다. 출판 텍스트의 경우 독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더라도 한참 뒤에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텔레비전 텍스트의 경우는 시청자의 외면을 받으면 조기 종영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는다. 따라서 미디어 텍스트는 출판 텍스트와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며, 미디어 텍스트를 둘러싼 미디어 문화 현상을 포괄하는 개념인 복합 양식 문식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정현선, 2014).¹⁾

텔레비전 기상 보도 텍스트는 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 텍스트와는 달리 오랜 기간 그 형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인포 그래픽 기술이 발달하고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경쟁 매체가 등장하여 수용자의 요구가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간 텔레비전 기상 보도 텍스트의 형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은 독특한 문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매체 비평 역시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 집중되고 있으며 기상 보도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비평하는 현상은 거의 없다.²⁾ 이러한 현상은 시청자들이 텔레비전 기상 보도 텍스트가 독립적인 미디어 텍스트 장르로 인식하기보다는 텔레비전 뉴스 텍스트의 마지막 꼭지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 텍스트가 제공하는 주요 사건에 몰입했던 시청자들은 뉴스 후반부로 갈수록 집중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마지막 꼭지인 기상 보도 텍스트를 접하게 된다. 시청자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지역의 기상 상태만을 선택하여 수용하거나 기상 캐스터의 매력에 집중해서 수용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결국 현재의 텔레비전 기상 보도 프로그램의 내용 구조는 시청자의 요구에 의해서 변화해 온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새롭거나 대안적인 형식을 시도해야 하는 강력한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텔레비전 기상 보도 프로그램은 ① 내일 날씨 개괄 설명, ② 내일 전국 기온, ③ 해상 날씨, ④ 주간 날씨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1990년대 이후 실시간 합성 기술이나 영상의 질은 크게 발전하였지만, 텔

-
- 1)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끝에 가서는 드라마 혹은 예능 프로그램 얘기를 하거나 혹은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무슨 프로그램을 봤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곤 한다. 오늘날 미디어 텍스트는 제작자와 수용자 간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용층의 다양한 요구가 제작에 크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화 텍스트가 자율적인 동시에 사회적으로 규정된다는 텍스트사회학의 근본 사상에 연결되어 있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 2) 기상 보도 텍스트에 관한 매체 비평은 주로 노출이 심한 기상 캐스터의 외상을 문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 최초의 기상 캐스터인 김동완 통보관과 현대의 기상 캐스터를 비교하는 논의가 대표적이다(이덕환, 2009).

레비전 기상 보도 프로그램의 내용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고, 방송사별 기상 보도 텍스트의 구조도 이 틀 안에서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전형적인 텍스트로 자리 잡았다(표 1).

[표 1] 2016년 10월 24일 지상파 방송 3사의 일기 예보 구성

| SBS | KBS | MBC |
|---|--|--|
| ① 내일 날씨 개괄 설명 한차례 가을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면서 내일도 다 소 서늘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 ① 내일 날씨 개괄 설명 맑은 하늘이 드러났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다시 흐려져 시간당 20mm 안팎의 강 한 비가 올 것으로 보여 주의 하셔야겠습니다. | ① 내일 날씨 개괄 설명 모처럼 눈부신 하늘이 드러났 는데 밤이 되면서 서쪽에서 다시 먹구름이 들어오고 (위성사진)지금 서쪽지방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폭넓게 자 리하고 있습니다. |
| ② 내일 전국 기온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 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1도 로 오늘날만큼 오르겠습니다. 남부 지방은 | ② 내일 전국 기온 비는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1도 예상됩니다. 강 원도는 | ② 내일 전국 기온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 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
| ③ 해상 날씨 없음 | ③ 해상 날씨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먼 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 ③ 해상 날씨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
| ④ 주간 날씨 이번 주 남부 지방 곳곳으로 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 ④ 주간 날씨 이제 계절은 점점 더 늦가을 로 접어들겠습니다. 기 상정보였습니다. | ④ 주간 날씨 모래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 심으로 또다시 비가 내릴 전 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

현행 텔레비전 기상 보도 텍스트는 내일 날씨, 전국 기온, 해상 날씨, 주
간 날씨와 같이 주제 중심으로 구성된 구조에 비교, 대조, 분석, 묘사와 같
은 전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중

복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내일 날씨’, ‘내일 전국 기온’, ‘주간 날씨’에 들어갈 내용이 완전히 상호 배타적일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다음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상 보도 텍스트의 사례이다.

① 내일 날씨 개괄 설명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내륙은 아침 한때 비가 오겠고 충청과 남부 지방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제주와 남해안 10에서 40, 그 밖의 남부 내륙 최고 20, 중부 지방은 5mm 안팎입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 오후부터는 서해안부터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날이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6도, 토요일은 13도까지 내려가겠고, 특히 주말 사이엔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춥기까지 하겠습니다.

② 내일 전국 기온

내일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은 16도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강원도는 한낮에 춘천 15도로 오늘보다 6도나 낮겠습니다. 영남도 대구의 낮 기온 16도로 평년 기온을 3.4도 밑돌겠습니다. 호남은 한낮에 광주 18도 예상됩니다.

③ 해상 날씨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④ 주간 날씨

토요일은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에 이어 다음 주에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내려가는 등 공기가 무척 차갑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2016.10.27. KBS 9시 뉴스 대본

이처럼 주제 중심으로 설명하다 보면 자연적인 시간 흐름에 따라 보도할 수 없게 되고 시간대별 날씨 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텍스트의 응집

성을 저해하게 된다.

내일은 추위를 몰고 오는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오늘 밤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주된 비구름은 남부 지방에 영향을 줘서 제주도와 남해안 부근에서 10에서 40mm, 그 밖의 남부 지방에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 남부 지방의 비는 내일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개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 지방은 출근길 무렵 5mm 안팎의 비가 살짝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구름 뒤편으로는 한기가 쏟아져 내려오겠습니다. 찬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면서 모레 아침에는 서울이 7도, 일요일 아침에는 3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남서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제주도에 약하게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 비구름은 차츰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3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지만 한낮에는 1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강릉이 15도로 예상 되고요. 남부 지방은 광주와 부산이 18도 등으로 오늘보다 최고 5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3~4m까지 무척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밑줄 : 필자)

-2016.10.27. MBC 대본

이처럼 현재 방송되고 있는 기상 보도 텍스트들은 오늘과 내일, 모레의 날씨 정보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청자들은 특정 시간대의 날씨 정보를 기상 캐스터가 어느 시점에 설명할 것인가를 예측하며 정보를 접하기 어렵게 되었다.

2.2. 기상 보도 텍스트의 형식

기상 보도는 텔레비전 뉴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초기의 기상 보도는 라디오 뉴스에서 기상 정보를 낭독하는 수준

이었으나 1970년대 텔레비전 시대를 맞아 전성기를 맞았다. 1972년 중앙방송 카메라 앞에서 복잡한 기상도를 척척 그려내면서 설명하는 김동완 통보관의 등장은 낭독 수준의 기상 보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

김동완 통보관은 일기예보의 근거를 설명하면서 예보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예견한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이덕환, 2009). 사실 김동완 통보관의 기상 보도 방식은 1954년 1월, 영국 BBC 저녁 뉴스에서 공군 출신의 기상청 직원이었었던 조지 코월링의 방식을 도입한 것이었다(Cowling, 1957).



[그림 1] 1954년 BBC 조지 코월링, 1972년 TBC 김동완 통보관의 기상 보도 장면

1980년부터 기상 보도는 화려한 컴퓨터그래픽의 도움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부터는 기상 전문가의 손을 떠나 화려한 스피치 능력을 갖춘 기상 캐스터라는 전문인이 탄생하였다. 일기도를 활용한 과학적인 분석은 점차 사라지고 기상 캐스터의 스피치와 화려한 인포 그래픽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한 것이다(그림 2). 현행 기상 보도 텍스트의 형식상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2] 2010년대 BBC Nazaneen Ghaffar와 MBC 박은지 캐스터의 기상 보도 장면

첫째, 기상 캐스터의 여성성이 지나치게 강조된다. 몸짓, 표정 의상 등 비언어적 측면에서 기상 전문가로서의 전문성보다는 보편적 의미의 여성성이 두드러진다. 모델처럼 예쁜 몸짓, 정제된 표정을 유지하는 기상 캐스터가 화면에서 차지하는 공간은 1/3정도다. 시청자의 시선이 인포 그래픽보다 합성된 인물인 기상 캐스터 쪽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그림 3).



[그림 3] MBC 박은지 기상 캐스터(2011. 4. 12.)

둘째, 불필요한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된다. 특히 전달 내용과 무관한 실사 배경이 쓰이는 경우도 다수 발견할 수 있다(그림 4). 이는 심미적 효과

를 일으킬 수는 있어도, 시청자의 정보 습득에는 방해가 된다.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상 캐스터의 설명과 일치하는 그림, 내용 전달에 필요한 그래픽만을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림 4] KBS 이세라 기상 캐스터(2016. 10. 29.)

셋째, 인포 그래픽 독해 시간이 부족하다. 주간 날씨 설명 시, 요일별 온도와 최고/최저 기온 등을 기호와 숫자로 표시한 하나의 표가 제시된다.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정보량이 많은데 비해 표가 화면에 띄워져 있는 시간은 5초 이내로 매우 짧다. 기상 캐스터가 한두 문장으로 핵심을 설명하기는 하지만, 그 설명이 표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질 높은 인포 그래픽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부터 봐야할지 모르는 시청자의 시선은 길을 잃는다(그림 5).³⁾

3) 물론 텔레비전 텍스트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몰입해서 수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 드라마나 예능, 다큐멘터리 텍스트는 다시 보기 서비스를 통해 음미하고 분석하면서 반복해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상 보도 텍스트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몰입할 여유가 없는 시각 자료를 짧은 시간에 과다하게 노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기상 정보는 텔레비전 기상 보도 프로그램 대신 다시 보는 방식이 아니라 휴대폰 날씨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얻기 때문이다.




[그림 5] SBS 이여진 기상 캐스터(2016. 10. 24.)

3. 대안적 기상 보도 텍스트

3.1. 대안적 기상 보도 텍스트의 내용 구조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기상 보도는 전국 기온, 해상 날씨, 주간 날씨와 같이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분석의 깊이를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역행적 구성을 취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시청자들은 주제별로 반복되는 설명을 시간의 흐름에 맞게 재구성해야 하는 인지적 부담을 지게 된다. 대안적인 기상 보도 프로그램의 내용 구조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되 분석의 깊이를 훼손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대안적인 일기 예보 구조는 ① 오늘 날씨 요약, ② 내일 날씨 개관, ③ 내일 오전 날씨, ④ 내일 오후 날씨, ⑤ 내일 이후 날씨 등으로 시간의 흐름에 맞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행 기상 보도 텍스트인 [표 2]를 대안적인 구조로 변형하면 [표 3]과 같다.

[표 2] KBS 9시 뉴스 기상 보도 텍스트(2016. 4. 4.)

| 영상 | 대본 |
|---|---|
|  | <p>오늘 남부 지방은 하늘이 다소 흐렸지만 중부는 완전한 봄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에 깨끗한 공기까지,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는 날씨였는데요. 한식이자 식목일인 내일은 남부 지방도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고 한낮에 서울 19도,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p> |
|  | <p>모레 수요일에는 남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목요일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비가 오면서 주 후반에는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p> |
|  | <p>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1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강원도는 한낮에 강릉이 23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p> |
|  | <p>영남은 부산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20도로 오늘보다 6,7도 높겠습니다. 호남은 아침에는 10도를 밑돌며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p> |
|  | <p>물결은 동해 중부 먼 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p> |
|  | <p>내일은 전국이 화창하겠지만 모레는 차차 흐려져 밤에 충청과 남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드립니다.</p> |

[표 3] 대안적 기상 보도 텍스트

| 영상 | 대본 |
|---|--|
|  | <p>① 오늘 날씨 요약</p> <p>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따뜻했습니다. 남부 지방만 하늘이 다소 흐렸는데요.</p> |
|  | <p>② 내일 날씨 개관</p> <p>한식이자 식목일인 내일은 남부 지방도 맑은 하늘을 회복해 전국이 화창하겠습니다. 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를 유지해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p> |
|  | <p>③ 내일 오전 날씨</p> <p>내일 수도권과 강원도의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습니다. 영남과 호남의 아침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서늘하겠습니다. 제주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비교적 따뜻하겠습니다.</p> |
|  | <p>④ 내일 오후 날씨</p> <p>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수도권의 낮 기온은 대체로 19도에 이르렀고, 강원도와 영남 지역의 낮 기온은 21도를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는 17도 안팎에 이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p> |
|  | <p>⑤ 내일 이후 날씨</p> <p>모레 수요일 밤부터는 충청과 남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차차 전국으로 확대돼 목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오면서 주 후반에는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p> |

이처럼 시간 흐름에 따라 기상 보도를 해야 기상 보도를 시청함과 동시에 날씨의 흐름을 머릿속에 정리하거나 원하는 정보를 선별하기 용이해진다. 시청자들이 텔레비전 기상 보도를 보는 주된 이유가 특정 날씨 혹은 특정 시간대의 기상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므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순행적 구성으로 기상 보도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2. 대안적 기상 보도 텍스트의 형식

현행 기상 보도 프로그램의 형식적인 측면의 문제점을 극복한 대안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포 그래픽을 간소화하고,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기상 캐스터의 전문성을 강조한다. 불필요한 컴퓨터 그래픽을 과감히 삭제하고 시간 내에 해석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제시해야 한다. 이때는 시간의 흐름에 맞게 ‘내일 오전’, ‘내일 오후’와 같은 명확한 표지가 필요하다(그림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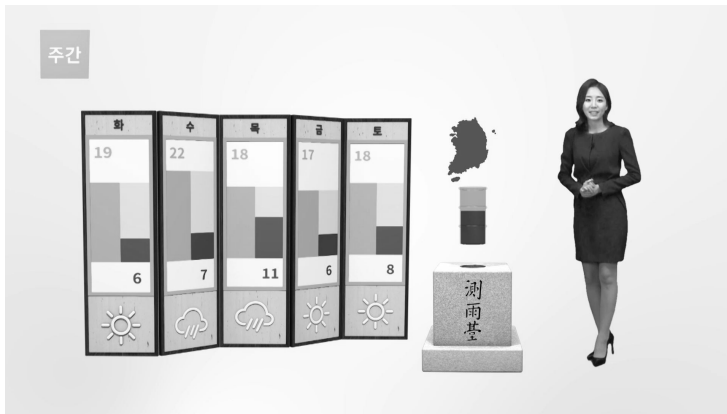


[그림 6] 내일 오전 날씨를 설명하는 그래픽



[그림 7] 내일 오후 해상 날씨를 설명하는 그래픽

둘째, 주간 날씨도 짧은 시간 내에 해독 가능한 정보만으로 간략하게 화면을 구성해야 한다. 표나 꺾은선 그래프보다는 각 요일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포 그래픽을 설계해야 한다(그림 8).



[그림 8] 내일 오후를 해상 날씨를 설명하는 그래픽

4. 기상 보도 텍스트를 활용한 복합 양식 문식성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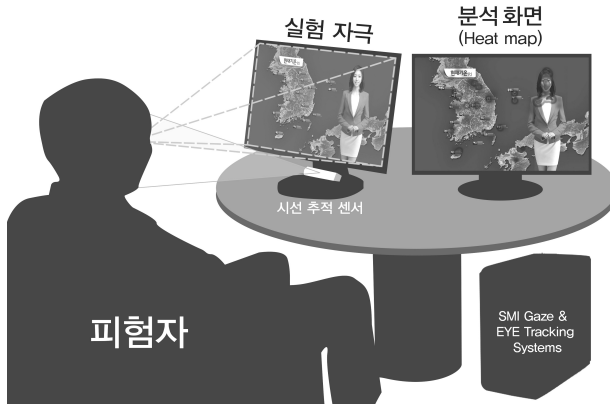
텔레비전 기상 보도 텍스트는 매체 언어 교육 현장에서 복합 양식 문식성 교육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현행 기상 보도 텍스트의 문제점을 시청자의 수용 문화까지 확장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적인 텍스트를 구성하는 활동은 기존의 텍스트 중심의 문식성 교육을 복합 양식 문식성 교육으로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4.1. 기상 보도 텍스트 수용의 문제점 인식

시선 추적기(Eye-Tracker)가 제공하는 다양한 분석 결과 중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결과물은 ‘히트 맵(Heat map)’이다. 시선이 집중되는 영역을 불이 타오르는 것으로 비유한 히트 맵은 다수의 피험자 데이터가 누적된다면 집단의 시선 추적 경향성을 대표하는 ‘느슨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평원, 2017 : 70). 한 개인의 시선 추적 데이터는 무의식적인 시선 응시 결과가 섞여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다수의 데이터가 누적된다면 무의식적인 시선 응시 데이터를 평균값으로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⁴⁾

시각 자료를 해석하는 화자의 인지적 과정에 관한 과학적인 정보는 프로토콜 분석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상 보도 텍스트를 수용하면서 시청자가 어떤 부분에 몰입하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은 미디어 텍스트를 제시하면서 시선 추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그림 9).

4) 히트 맵은 어느 곳을 얼마동안 응시하는지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느 부분에 시선이 집중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느슨한 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구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자료 탐색을 위한 도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 9] 기상 보도 텍스트를 수용하는 시선의 추적

이미 국어교육학계와 한국어교육학계에서도 시선 추적 장치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박영민, 2012; 서혁 & 이소라, 2013; 서혁 · 오은하 · 이소라, 2014; 김현진 · 강승혜, 2016).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시선 추적 장치를 활용하여 사고 구술이나 프로토콜 분석을 통해 시범을 보일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중 · 고등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고가의 장비이다. 대신 피험자의 자료 해석 과정을 시선 추적기로 분석한 히트 맵 자료는 실제 수업에서 시각 자료 해석 전략을 설명하는 선행 조직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Ausubel, 1968 : 83-84). [그림 10]은 기상 캐스터인 인물에 몰입하는 미디어 수용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수업용 자료들이다.⁵⁾

5) 텔레비전 기상 보도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히트 맵은 2017년 1월, 서울 소재 M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확보하였다(IR B : 7007971-201612-007-01).



[그림 10] 기상 캐스터에 몰입하는 매체 수용 현상

더불어 단순한 시각 자료와 복잡한 시각 자료 해석 과정의 차이를 학생 수준별로 나누어 비교한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다(표 4).⁶⁾ 시각 자료 해석 능력이 탁월한 학생은 제목과 범례를 통해 시각 자료가 전하고자 하는 의

6) 수준별로 시각 자료 해석에 차이가 있음을 학습할 수 있는 히트 맵 자료는 2014년 인천광역시 소재 M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확보하였다 (IRB : 7007971-201612-006-01).

도를 간파한 후 순서대로 골고루 읽어 나가는 패턴을 유지하였다. 보통 집단 역시 시각 자료의 의도를 먼저 파악한 후 구체적인 수치들을 읽어 나갔으며, 특히 값에 주목하면서 의미 있는 해석을 추론해가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미흡 수준의 학생들은 의미 있는 수치에 주목하지 못하고 일정한 패턴 없이 시선이 분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평원, 2017 : 72-73).

[표 4] 단순한 자극의 시선 처리(김평원, 2017)

| 집단 | 그래프 | 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탁월 | <p>(4) 2011년 연령별 비만 유병률(%)</p> | <p>(3) 19세 이상 성인 비만 유병률 추이(%)</p> <table><tr><th></th><th>1998</th><th>2001</th><th>2005</th><th>2009</th><th>2011</th></tr><tr><td>남자</td><td>26.3</td><td>33.6</td><td>37.6</td><td>37.8</td><td>37.7</td></tr><tr><td>여자</td><td>30.5</td><td>32.2</td><td>31.4</td><td>29.5</td><td>30.1</td></tr><tr><td>전체</td><td>29.1</td><td>32.7</td><td>34.8</td><td>34.0</td><td>34.2</td></tr></table> | | 1998 | 2001 | 2005 | 2009 | 2011 | 남자 | 26.3 | 33.6 | 37.6 | 37.8 | 37.7 | 여자 | 30.5 | 32.2 | 31.4 | 29.5 | 30.1 | 전체 | 29.1 | 32.7 | 34.8 | 34.0 | 34.2 |
| | 1998 | 2001 | 2005 | 2009 | 2011 | | | | | | | | | | | | | | | | | | | | | |
| 남자 | 26.3 | 33.6 | 37.6 | 37.8 | 37.7 | | | | | | | | | | | | | | | | | | | | | |
| 여자 | 30.5 | 32.2 | 31.4 | 29.5 | 30.1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29.1 | 32.7 | 34.8 | 34.0 | 34.2 | | | | | | | | | | | | | | | | | | | | | |
| 보통 | <p>(4) 2011년 연령별 비만 유병률(%)</p> | <p>(3) 19세 이상 성인 비만 유병률 추이(%)</p> <table><tr><th></th><th>1998</th><th>2001</th><th>2005</th><th>2009</th><th>2011</th></tr><tr><td>남자</td><td>26.3</td><td>33.6</td><td>37.6</td><td>37.8</td><td>37.7</td></tr><tr><td>여자</td><td>30.5</td><td>32.2</td><td>31.4</td><td>29.5</td><td>30.1</td></tr><tr><td>전체</td><td>29.1</td><td>32.7</td><td>34.8</td><td>34.0</td><td>34.2</td></tr></table> | | 1998 | 2001 | 2005 | 2009 | 2011 | 남자 | 26.3 | 33.6 | 37.6 | 37.8 | 37.7 | 여자 | 30.5 | 32.2 | 31.4 | 29.5 | 30.1 | 전체 | 29.1 | 32.7 | 34.8 | 34.0 | 34.2 |
| | 1998 | 2001 | 2005 | 2009 | 2011 | | | | | | | | | | | | | | | | | | | | | |
| 남자 | 26.3 | 33.6 | 37.6 | 37.8 | 37.7 | | | | | | | | | | | | | | | | | | | | | |
| 여자 | 30.5 | 32.2 | 31.4 | 29.5 | 30.1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29.1 | 32.7 | 34.8 | 34.0 | 34.2 | | | | | | | | | | | | | | | | | | | | | |
| 미흡 | <p>(4) 2011년 연령별 비만 유병률(%)</p> | <p>(3) 19세 이상 성인 비만 유병률 추이(%)</p> <table><tr><th></th><th>1998</th><th>2001</th><th>2005</th><th>2009</th><th>2011</th></tr><tr><td>남자</td><td>26.3</td><td>33.6</td><td>37.6</td><td>37.8</td><td>37.7</td></tr><tr><td>여자</td><td>30.5</td><td>32.2</td><td>31.4</td><td>29.5</td><td>30.1</td></tr><tr><td>전체</td><td>29.1</td><td>32.7</td><td>34.8</td><td>34.0</td><td>34.2</td></tr></table> | | 1998 | 2001 | 2005 | 2009 | 2011 | 남자 | 26.3 | 33.6 | 37.6 | 37.8 | 37.7 | 여자 | 30.5 | 32.2 | 31.4 | 29.5 | 30.1 | 전체 | 29.1 | 32.7 | 34.8 | 34.0 | 34.2 |
| | 1998 | 2001 | 2005 | 2009 | 2011 | | | | | | | | | | | | | | | | | | | | | |
| 남자 | 26.3 | 33.6 | 37.6 | 37.8 | 37.7 | | | | | | | | | | | | | | | | | | | | | |
| 여자 | 30.5 | 32.2 | 31.4 | 29.5 | 30.1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29.1 | 32.7 | 34.8 | 34.0 | 34.2 | | | | | | | | | | | | | | | | | | | | | |

하지만 매우 복잡한 자료를 제시했을 때에는 탁월, 우수, 미흡 집단 차이가 없다(표 5). 그래프의 경우 범례에 시선이 집중하였으나 데이터가 너무 많고 복잡한 관계로 여백을 포함한 영역 곳곳으로 시선의 흐트러지

고 있었다. 표 역시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우수 집단과 미흡 집단 모두 첫 항목에만 시선을 집중한 후 내용 파악 과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히트 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평원, 2017 : 73). 이러한 자료들은 기상 보도 텍스트의 인포 그래픽이 지나치게 복잡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교육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표 5] 복잡한 자극의 시선 처리(김평원, 2017)

| 집단 | 그래프 | 표 |
|----|-----|---|
| 우수 | | |
| 보통 | | |
| 탁월 | | |

4.2. 대안적인 매체 글쓰기와 복합 양식 문식성 교육

표와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은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과는 다른 전략이 요구되며, 그것들을 쓰고 발표하는 전략 역시 차이가 있다. 국어과에서 시각 자료를 다루는 중요한 까닭은 동일한 표와 그래프를 주고 이를 해석하는 발표를 할 경우 화자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층위의 텍스트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서 강조하는 시각 자료 해석 또는 활동 능력이 교과서와 교수·학습 차원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단순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맴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교육부, 2015 : 31-42).

[6국01-05]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표한다.⁷⁾

[6국02-05] 매체에 따른 다양한 읽기 방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적용하며 읽는다.⁸⁾

[9국01-11]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하며 듣는다.

[9국02-07] 매체에 드러난 다양한 표현 방법과 의도를 평가하며 읽는다.

이는 수치 표와 그래프의 특성을 강조할 경우 수학이나 경제 교과서의 내용 지식(Contents Knowledge)과 차별성이 없고, 시각 자료를 해석하고 표현하는 전략적 지식을 교수·학습하는 상황에서도 시각 리터러시(visual literacy) 측면보다는 자료의 내용 자체에 함몰되기 쉽기 때문이다. 기상 보도 텍스트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날씨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7) 이 성취 기준은 매체의 특성에 따라 그림, 표, 그래프, 사진, 동영상 등 말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거나 요약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발표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화자의 생각을 형상화한 매체 자료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면 청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교육부, 2015 : 32).

8) 이 성취 기준에서는 문자뿐 아니라 그림, 표, 그래프, 사진, 동영상 등의 매체가 내용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매체의 유형에 따라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생각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읽기 방법을 찾아 적용하며 읽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교육부, 2015 : 34).

생활 친화적이고, 중고등학교 과학이나 지리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기상 관련 지식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교과 친화적이다. 방송사에는 이미 엄청난 양의 기상 보도 텍스트가 공개되고 있고 하루에도 수십 개의 텔레비전 기상 보도 텍스트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상 보도 텍스트를 대안적인 방식으로 고쳐 쓰는 활동을 쉽게 실천할 수 있다. 다음은 기존의 날씨 대본과 대안적인 대본의 사례를 정리한 수업 자료이다(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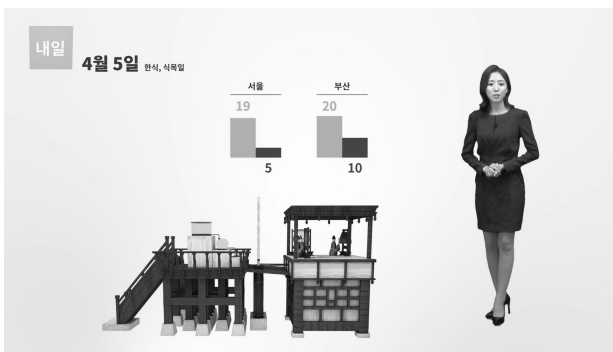
[표 6] 2016년 7월 28일 KBS 9시 뉴스 기상 보도를 변형한 텍스트

| 기존 텍스트 | 대안 텍스트 |
|---|---|
| <p>이제 칠월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중부 지방에 산발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가끔 비구름이 만들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남부 지방은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한낮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중부보다는 남부의 기온이 더 높았고 남부 중에서도 특히 영남은 연일 35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영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고 광주 33도, 서울은 29도 예상됩니다. 내일 수도권과 충청은 오늘보다 기온은 조금 내려가겠지만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춘천의 낮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영남은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도도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1에서 2m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구름이 조금 지나는 가운데 남부 지방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한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p> | <p>오늘도 한낮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중부보다는 남부가 더 더웠는데요, 남부 중에서도 특히 영남 대부분 지역은 폭염 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무더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충청, 강원도는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이겠는데요. 다만 장마의 영향으로 습도가 높겠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비구름이 만들어져 중부 지방에 산발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이 5에서 30mm 정도로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니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남부 지방은 상대적으로 장마의 영향을 덜 받겠지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기온은 더 높겠는데요. 영남 호남 제주 모두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되니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1에서 2m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구름이 조금 지나는 가운데 남부 지방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에 이어서 다음 주 초까지도 기온이 높고 구름이 많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p> |

이처럼 텔레비전 기상 보도 텍스트의 내용을 구성하는 활동은 직접 기상 보도 텍스트를 제작하는 복합 양식 문식성 교육으로 심화 발전시킬 수 있다. 학생들 스스로 미디어 텍스트 제작자가 되어 기상 보도 텍스트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활동은 매체 언어 이해 활동을 복합 양식 텍스트 창작 활동으로 확장시키는 것이다. [그림 11]과 [그림 12]는 필자가 [표 6]에 비교한 기상 보도 텍스트를 미디어 텍스트로 제작한 사례이다(Kim, 2018).⁹⁾



[그림 11] 현행 기상 보도 텍스트(Kim, 2018)



[그림 12] 대안 기상 보도 텍스트(Kim, 2018)

9) ① 동영상 확인 및 수업 활용 : 현행 기상 보도 텍스트 <https://youtu.be/yLzGn2nood8>
 ② 동영상 확인 및 수업 활용 : 대안 기상 보도 텍스트 <https://youtu.be/3yyIw7K5IQY>

5. 결론

시각 자료 자체는 국어과 이외에 다양한 교과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시각 자료를 해석하는 학습자의 인지적 과정과, 텍스트와 시각 자료의 관계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은 국어과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학습 내용이다. 기상 보도 텍스트는 과학적 정보를 사람이 설명하는 복합 양식 텍스트로서 국어과에서 강조하는 시각 자료 해석과 언어 표현 활동, 매체 언어 분석, 매체 표현과 관련된 성취 기준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수·학습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히트 맵을 활용한 미디어 텍스트 분석 및 비판적 분석 활동은 ‘시각 자료를 사용하여 시각 자료 해석과 표현 방법을 교육한다’는 점에서 ‘메타 시각 자료(meta-visual materials)’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의의는 기상 보도 텍스트의 내용 구조와 형식적인 측면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후,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국어 교육의 장으로 포함시키는 전략을 제시한 점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선 추적 자료를 선행 조직자로 활용하여 활동 중심 수업으로 확장시키는 방법은 과정 중심 교육이라는 점에서 내용 교수 지식(PCK)에 해당할 것이다. 더불어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중요한 직무 능력으로 강조되는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위해서도 유용한 기초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로는 복합 양식 리터러시 교육에서 요구되는 문자, 시각, 음성에 관한 깊이 있는 비교 분석이 부족하다는 것과 미디어 소통 문화를 고려한 교수·학습 전략까지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물은 국어과를 중심으로 한 복합 양식 문식성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 기상학은 이미 지리와 지구과학 교과에서 다루고 있으며 기상 보도 영상물 수준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충분

히 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어과와 과학과 및 정보와 컴퓨터 교과가 융합하여 실천하는 미디어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윤(2015), <기상 캐스터>,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Kim, J. Y. (2015), *Weather Casto*, Seoul : Communication Books
- 교육부(2015),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서울 :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2009), *Explan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high school*. Seoul : Ministry of Education.
- 김평원(2017), 시선 추적 결과물을 활용한 시각 자료 해석 교육, <새국어교육>(한국국어교육학회) 110, 63-86. Kim, P. W.(2017), A Study on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Visual materials using Eye Tracking Analysis, *Korean Education* 110, 63-86. doi : 10.15734/koed..110.201703.67.
- 김현진 · 강승혜(2016),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속독 훈련이 시선고정(fixation)과 도약(saccade)에 미치는 영향—시선 추적 기법(eye-tracking)을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국제한국어교육학회) 27(3), 23-48. Kim, H. J. & S. H. Kang (2016), Effects of Speed Reading Training for Korean Learners on Fixation and Saccade—Utilizing Eye-tracking—,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27(3), 23-48. doi : 10.18209/iakle.2016.27.3.23.
- 박영민(2012), 눈동자 움직임 분석과 작문교육 연구, <작문연구>(한국작문학회) 18, 35-61. Park, Y. M. (2012), Eye Tacking Method and Writing Education Research, *Journal of Writing Research* 18, 35-61.
- 서혁 · 이소라(2013), 시선추적장치를 활용한 읽기 과정 연구의 현황과 가능성 탐색, <국어교육학연구>(국어교육학회) 46, 479-503. Suh, H. & S. R. Lee. (2013), The Current Status and Perspectives of Research on Reading Process Using Eye-tracker,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46, 479-503. doi : 10.20880/kler.2013..46.479.
- 서혁 · 오은하 · 이소라(2014), 공공문식성 신장을 위한 인터넷 민원 문서 실행 과정 분석, <국어교육연구>(서울대학교국어교육연구소) 33, 103-130. Suh, H., E. H. Oh, & S. R. Lee. (2014), An Analysiso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Internet Civil Application Document Focused on Public Literacy, *Th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33, 103-130. doi : 10.17313/jkorle.2014.33.103.

- 이덕환(2009), 이덕환의 날씨 칼럼 : 화려한 일기예보의 딜레마, <하늘 사랑>(기상청) 6월호. Lee, D. H. (2009), Lee Duk-hwan's weather column : A glorious weather forecast dilemma, *Heavenly love* 6,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 정현선(2014), 복합양식 문식성 교육의 의의와 방법, <우리말교육현장연구>(우리말교육현장학회) 8(2), 61-93. Jeong, H. S. (2014), The meanings and methods of multimodal literacy education, *Field Studi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8(2), 61-93.
- 정혜승(2008), 문식성(Literacy)의 변화와 기호학적 관점의 국어과 교육과정 모델, <교육과정연구>(한국교육과정학회) 26(4), 149-172. Jeong, H. S. (2008), Changes of Literacy and Model of Korean Language Curriculum in a Semiotics Perspective,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6(4), 149-172. doi : 10.15708/kscs.26.4.200812.007.
- Ausubel, D. P. (1968), *Educational Psychology : A Cognitive View*,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Cowling G. (1957) TV Weatherman. *Weather* 12, 22-26. doi : 10.1256/wea.138.05
- Kim, P. W. (2018). Chameleon-like weather presenter costume composite format based on color fuzzy model. *Soft Computing* 22, 1491-1500. doi : 10.1007/s00500-017-2868-0.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of Multimodal literacy Using Television Weather Report

Kim, Pyoungwon

As the media developed, the ability to present using various visual materials became important communication skills. The curriculum emphasizes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express visual materials. However, it remains at the low level of common sense in the textbooks and teaching and lear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eaching and pedagogical contents knowledge to strategies to analyze and utilize tables and graphs. This paper propose a learning method that utilizes television weather report as a Advanced organizer that students can easily understand. The structure of an alternative weather reporting program is to construct a dynamic statement so as not to undermine the depth of analysis, which is an advantage of static statements. Using eye tracking data from a group with excellent visual analysis skills and a lacking group as a leading organizer, students will be able to effectively teach visual interpretation strategies.

Key words : Media, Visual Material, Media language, Multimodal literacy, TV, weather report text